

##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 - 애착, 과민성 자기에, 외로움과의 관계

이 인 숙<sup>†</sup>

한국항공대 학생생활상담소

최 해 립

서강대학교

수치심은 전체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자기에 장애, 중독, 섭식, 사회불안 등 다양한 심리장애의 핵심역동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상태척도로 측정할 것인가, 특질척도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고, 특질수치심 척도 가운데 하나인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Cook: ISS, 2001)'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과 대학원생 346명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와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사회적/정서적 성인외로움 척도 단축판(Short form of the Social &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 SELSA-S)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ISS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적절감, 공허, 자기치별, 실수불안 등 4개 하위요인을 확인했다. 이 중 부적절감 요인이 ISS로 측정된 수치심을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ISS로 측정된 수치심이 어머니 애착, 과민성 자기에, 가족/친구/연애관계에서의 외로움과 가지는 관계를 보기 위해서 상관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ISS로 측정된 수치심은, 어머니 애착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자기에 및 외로움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실제에서 수치심의 치료 개입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수치심, 애착, 자기에, 외로움.

---

<sup>†</sup> 교신저자 : 이 인 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0-1, 한국항공대 학생생활상담소  
전화 : 02-300-0029, E-mail : belovedminerva@hanmail.net

다양한 정신병리 및 일상생활 속 행동 및 정서 반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치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Kaufman (1989)은 수치심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에 대해, 프로이드 시대에 전형적인 심리장애였던 강박증이나 히스테리 증상과 달리, 우리시대의 심리장애로 자기 존중감의 문제와 관련된 자기애장애, 경계선장애, 중독, 섭식장애들이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심리치료의 초창기 프로이드는 수치심을 노출증이나 관음증 등 성적 충동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고, 자기애와 자아 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언급했다. 그렇지만 심리내적 환상과 구조에 강조를 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수치심보다는 죄책감에 보다 초점을 맞췄다. 프로이드 이후의 임상가들은 수치심의 임상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죄책감과 구분 필요함을 역설하고,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원초적이고 병리적이라고 보았다(Piers & Singer, 1953; Erikson, 1971; Lewis, 1971). 이후 많은 수치심 연구가 죄책감과 구분 및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이뤄졌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들이 척도간 상관에 그치고 있고, 심리장애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모델로서의 수치심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남기숙, 2002).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의 포괄적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그동안 수치심 연구에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상태척도를 많이 사용해왔지만, 특질척도로 수치심을 측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거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질수치심 척도의 하나인 ISS(Internalized Shame Scale, 2001)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ISS로 측정한 수치심과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 상태수치심과 특질수치심

지금까지 많은 수치심 연구는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에 중점이 있었다. 이는 Lewis(1971)가 수치심을 전체 자기(entire self)가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죄책감은 구체적 행동이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구분한 이래, 다수의 연구들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여타 정신병리 지표들과 가지는 관계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연구를 통해서 수치심은 우울이나 불안, 분노, 적개심, 복수심, 짜증,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 자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복종적 행동 등 각종 성격 구성개념 및 정신병리 지표와 관련성이 입증된 데 비해, 죄책감은 이들 변인과의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공감이나 타인의 조망 수용 등 같은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인과 관련하여 수치심은 부적의 상관을 보인 데 비하여 죄책감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남기숙, 2002).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연구자들은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병리적인 심리기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측정치의 문제라고 보기도 했다(Ferguson & Crowley, 1997; Harder, 1995). 또 죄책감과 구분이 아닌 수치심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가, 수치심을 상태척도로 측정할 것인가, 특질척도로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하기도 했다. 본 연구자들은 여기서 특질척도는 개인의 성격으로 내면화된 전반적인 자아의 경험을 묻는 척도라는 의미로, 상태척도는 특정상황에서의 개인의 내적 반응을 묻는 척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에 국내의 수치심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 중 TOSCA(Test of Self-Conscious Affect)는 상태척도로, 그리고 PFQ-2(Personal Feelings Questionnaire-2)는

특질척도로 구분될 수 있다(남기숙, 2002).

TOSCA(Tangney, Wagner, & Gramzow, 1989)는 가상의 특정한 상황/시나리오(예를 들어, ‘실수를 해서 윗사람이 당신을 야단쳤다’ 등)를 제시하여 상상하게 한 다음,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떠올리게 해서 평정하도록 한 척도이다. TOSCA 제작자인 Tangney는, 자신들이 만든 척도가 수치심/죄책감 경험을 보다 타당하게 구분해 포착하는데, 특히 죄책감은 그 자체가 특정행위에 대한 평가이므로, PFQ나 PFQ-2 같은 ‘전반적인’ 형용사 점검표로 죄책감을 측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Tangney 자신도 수치심을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global) 부정적 경험’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다만 ‘수치심’은 하나의 정서(emotion-affective state)이며, 특질 혹은 성격경향성(disposition)으로 이야기할 때는 ‘수치심 경향성(shame-proneness)’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PFQ-2 같은 형용사 점검표로 측정할 경우, 수치심의 방어적 경향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를 죄책감으로 명명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감안, TOSCA처럼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 개인의 성격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다(Tangney & Dearing, 2002).

그러나 TOSCA는 내적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제시되는 시나리오의 수가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수치심 상황에 대한 표집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치심이 하나의 정서적 경험을 넘어서는 개인의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경험과 지각이라는 것과, 수치심을 이해할 하는데 필요한 구성개념을 제공하는 데도 제한점이 있어 보인다. 최근 국내에서 상황중심의

수치심 척도를 개발한 고나영(2004)은 수치심이 여러 상황에서, 특히 타인이 존재할 때 느낄 수 있는 정서이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근원적인 수치심은 자신이 개발한 척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임상가들에 따르면 존재에 대한 수치심은 어린 시절 중요 양육자와의 경험에 의해 생겨나기 시작해서 개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만성화하는 성격특질로서 이해된다. 특성척도와 상태척도를 모두 사용해 수치심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Allan과 Gilbert, Goss(1994)는 상태수치심 측정치보다 특질수치심 측정치가 정신병리 지표들과의 상관성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또 상황 중심의 상태척도와 특질척도간에는 중간 정도의 상관밖에 보이지 않았다. 특히 BDI 9점 이상의 사례를 분석하였을 때는 상태수치심 측정치와 BDI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사라지고, 특질수치심 측정치와 BDI간의 상관만 남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Allan 등(1994)은 특질수치심 척도가, ‘특정상황에서 유발되는 하나의 정서반응’이 아니라 ‘자기와 타인간 관계 경험의 중심을 이루는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현상’으로서 수치심의 병인적 측면(pathogenic effect)을 강조하는 Lewis 등의 이론에, 상황을 통한 수치심 척도보다 더 일치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내면화된 부적응과 성격특질로서의 수치심을 이해하고 심리치료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특질척도의 국내 타당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특질수치심 척도로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PFQ는 Harder와 Lewis에 의해 1987년 5개의 수치심 관련 형용사와 3개의 죄책감 관련 형용사 목록으로 개발되었다. 그후 1992년에 수치심 10문항, 죄

책감 6문항의 PFQ-2로 개정되었다. 이 척도는 ‘부끄럽다’ ‘창피하다’ 등의 정동적 기술어를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PFQ-2는 1999년 심종은(2000)이 번안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안면타당도가 높고 사용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어, Tangney의 주장처럼 심리적 방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형용사로만 되어 있어 수치심을 각각의 구성개념에 따라 측정하고 이해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보인다.

### 특질수치심-내면화된 수치심의 측정

수치심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졌으면’ 하는, ‘취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감과 부적절감을 포함하는 문제로 이야기된다. Piers와 Singer (1953)에 따르면 수치심은 실패와 연결되어 있으며, 무의식적인 위협으로 버림받는 것 즉 유기(abandonment)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방어로 스스로를 처벌하거나 고통 받도록 하여 보상케 하려는 행동이 뒤따른다. 또 수치심을 전형적으로 자기 전체(entire self)가 문제시되는 경험으로 본 Lewis(1971)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평가절하와 부정으로 인해, 자신을 바보 같고, 유치하고,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느껴, 종종 숨거나 사라지고 싶어한다.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거나, 방어적으로 타인에게 잘못을 투사하고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보상하기 위해 오만함, 거만함,

뻔뻔스러움으로 외재화 하기도 한다.

1963년 Tomkins는 수치심이 9개의 타고난 정동 가운데 하나로 감정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상적인 생리적 흥분이나 즐거움이 너무 자주, 혹은 너무 많이 방해받으면 수치심이 과도해질 수 있다. 이 주장은 현재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않는 듯하지만 발달적 맥락에서 수치심을 보는 데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한편 그는 초기의 정서이론으로부터 후기에는 자기심리학과 대인 관계적 이해를 더해, 외부로부터 자극과 관계없이도 내적인 자기(self)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것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도 보았다. Kaufman(1989)은 Tomkins의 정동이론에 Fairbern, Guntrip 등의 대상관계 이론, 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을 통합했다. 그에 따르면 수치심은 열등감 정서(affect of inferiority)로 개인의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며, 생애초기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내적 경험이지만, 이후 부분적으로 인지적이고 자기 평가적인 경험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그는 성격적인 수치심은 현상학적으로는 신체에서 오는 수치심, 관계에서 오는 수치심, 자신감과 관련된 수치심으로 이뤄진다고 보았다. 또 Nathanson (1992)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 내 힘으로는 안된다는 독립-의존의 문제, 남에게 뒤진다고 느낌, 뭔가 모자란다는 자기지각, 신체적 매력, 성적 결함, 타인에게 노출되어 다 드러나 보이기 전에 도망가려는 충동, 관계가 가까워질 때 자신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 혼자이고자 하는 느낌과 공포 등을 수치심의 내용으로 들었다. 한편 Wurmser(1987)는 취약함(weakness), 불완전함(defectiveness), 불결함(dirtyness)의 3요소가 수치심의 원내용을 이루었다가, 성장발달과

함께 성적 노출, 사회적 실패, 통제력 부족, 수동성, 거짓됨, 이중성, 배신 등에 대한 수치심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전체 자기가 문제 시되는 경험으로 본 Lewis(1971) 이론을 받아들 이면서, 수치심이 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Kaufman 등의 견해를 따랐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특질수치심 척도로 Cook(1987)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에 주목했다.

Cook의 ISS는 1984년에 이루어진 Ehrlich의 ISS 예비연구(pilot version)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척도이다. 이 예비연구는 당시까지의 Kaufman, Lewis, Lynd, Tomkins, Wurmser 등의 문헌에 나오는 수치심 개념을 모아 알콜중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드분류(card Sort) 방식의 연구였다. Cook은 ISS를 사용해서, 개인의 자기(self)안으로 내면화된, 자기를 향한 강한 부정적 정서로서의 수치심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Cook(2001)의 보고에 따르면, ISS의 수치심 점수는 SCL-50 질문지로 측정한 우울, 신체화, 강박, 대인예민성, 불안, 적개심, 편집적 경향과 .45에서 .74까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준다. 또 BDI척도와는 .59에서 .79까지, 각종 불안척도와는 .68에서 .91까지, 자살척도(Suicide Probability Scale, SPS)와도 .52에서 .81까지 등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 기타 분노, 성격장애와의 상관도 제시되고 있다.

Rybak과 Brown(1996)에 따르면 ISS는 내면화된 만성적인 특질로서의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치료(helping process) 단계에서 내담자의 자기 전체의 손상(break in wholeness)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ISS로 측정한 비임상집단과 임상집단의 수치심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수치심이 불안과 우울, 적개심과

상관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Goss, Gilbert와 Allan(1994)은 ISS의 문항으로부터,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지각을 중심으로 한 ‘타인에 대한 수치심 척도(The Other As Shame Scale, OAS)’를 개발했다. 이들은 수치심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실제 혹은 상상 속 타인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타인에 의한 평가에 대한 지각은 연결돼 있다고 보았다. 이들 연구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과 수치심간의 상관은 높게 나타났다( $r=.52$ ). 또 OAS 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열등감, 공허, 실수가 수치심을 이루는 세 요인으로 도출됐고, 이 중에서 열등감의 설명 변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 측정도구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위한 시도의 하나로, Cook의 ISS를 이용해 수치심을 측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그 하위요인을 확인하였다.

### 수치심, 애착, 과민성 자기애, 외로움의 관계

지금까지 국내의 수치심 연구는 죄책감과 구분에 대한 연구(남기숙, 2002, 2003)와, 종교적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김지아, 2003; 홍은수, 2002) 등 많은 부분이 문헌연구에 집중돼 왔다. 경험적인 연구로는 자기애와 사회불안(한해림, 2004), 학업(안선애, 2004), 병리적 의존(신주연, 2003), 피학대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전철은, 2002), 자기불일치(서현명, 2002), 우울 및 사건귀인(심종은, 1999; 정형수, 2003), 분노, 우울, 불안(류설영, 1999), 양육과 가정환경(하유미, 1998) 등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 있지만 발달적 맥락에서 본 경험적 연구의 성과는 더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어떻게 내면화되고 병리적으로 변환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수치심과 어머니 애착과의 관련성을 보았다. 그리고 개인 안에 내재화된 수치심이 자기애적 과민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소외 즉 외로움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수치심이 어떻게 발생해 유지되는가에 대해, Erikson(1971)은 배변기에 부모가 아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점진적인 자율성을 경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생긴다고 보았다. 이때 아이는 스스로를 과잉조작해서 조숙한 양심(precocious conscience)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Lewis(1987)는 수치심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철회로, 자기를 자각할 수 있는 자의식의 발달이 전제되는 생후 18에서 36개월 사이에 서서히 출현하는 자의식적 정서로 수치심을 보았다.

Tomkins(1987)에 의하면 수치심은 양육자의 무시나 거부로 인해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이 중단되면서 생기는 반응이다. Broucek(1991)도 3개월 난 아이가 어머니와 마주 보고 웃는 상호작용의 관찰을 통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항상 보여주던 감정이 어머니 자신의 감정변화 등으로 인해 낯선 사람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 수치심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Nathanson(1992)은 웃고 마주보던 어머니가 굳은 반응으로 전과 다르게 반응할 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갑자기 몸이 무너지듯 앉으면서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는 것을 수치심의 원초적 모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수치감 정서는 모든 발달단계에 걸쳐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을 가져오고, 자아감(sense of self)의 정교화를 위한 강력한 기제라는 것이다. Kaufman

(1989)은 수치심이 한번 내면화되면, 다양한 대인 관계적 상황에서 유발된다고 보고, 이러한 개인의 성격을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shame-based identity)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수치심과 애착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Cook(1991)은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관심의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통제와 과보호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은 높을 것이라고 보았다. Gilbert, Allan와 Goss(1996)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았거나 부모가 다른 형제들을 편애해 자신은 덜 사랑받았다고 지각하는 경우 수치심을 느끼기 쉽고, 대인관계 문제나 다른 정신병리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Classon과 Sohlberg(2002)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 거부, 유기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경우에 수치심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했다. Ruch(1996: Cook, 2001에서 재인용)는 Bartholomew의 4범주 애착유형과 수치심의 관계를 본 연구를 통해, 두려워하는(feaful) 유형의 애착집단이 수치심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몰두된(preoccupied) 유형의 애착집단, 안정된(secure) 유형의 애착집단, 거부적(dismissing) 유형의 애착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Ruch는 두려워하는 유형의 애착집단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 원하면서도 물러나는 철회행동을 통해서 수치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방어하는 데 비해, 거부적 유형의 애착집단은 수치심 자체를 느끼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수치심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수치심과 자기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Kohut(1971)은 어린시절 주요 양육자에 의해 적절한 반영(mirroring)과 정서적 조율이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경험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라고 보았

다. 이 경우 유아는 건강한 자기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병리적 자기애로 발전하게 된다. Morrison(1989)도 수치심이 자기애의 저변(underside of narcissism)을 이루는 것으로 이상적 자기애 도달하지 못한 실패와 열등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Wurmser(1987)는 자기애의 ‘감춰진 동반자(the veiled companion)’로 수치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자기애 중에서도 DSM-4에서는 진단범주가 제공되지 않는, 매우 억제적이고 수줍음 많은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과 관련이 더 크다고 보고된다(Schurman, 2000; 한해림, 2004). 특히 한해림(2004)은 수치심이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수치심이 중요 양육자로부터 광범위한 타인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생기는 정서라는 점에서, 이후 대인관계에서 외로움과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되었다. Lewis(1987)는 수치심이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Self In The Eyes Of The Other)의 경험으로, 타인-실제 인물이든 상상의 인물이든의 시선 앞에 노출된 자신이 타인의 시각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져, 타인으로부터 철회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보았다. Kaufman(1989)도, 수치심을 대인관계의 가교에 균열이 가는 경험(Rupture in the Interpersonal Bridge)으로 표현해 수치심과 대인관계의 관련성이 크다고 보았다. Gilbert, Allan와 Goss(1996)는 ISS로 측정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 질문지(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로 측정된 여러 대인 관련 문제 중에서 과도한 냉정함, 내향성, 비주장성, 착취 및 과도한 표현 등과 관계가 있고, OAS로 측정된 수치심의 경우는 과도한 착취를 제외한

대인관계 문제 모두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S로 측정된 수치심이, 중요타자인 어머니와의 애착과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한편, 양육의 부적절함에 대한 자기방어의 한 형태로 이해되는 자기애적 과민성과는 정적 관계를 가질 것임을 가정하였다. 또 성격특질로서 수치심의 내면화는 가족/친구/연애 관계 등 다양한 대인관계에서의 심리내적 외로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였다.

## 연구 방법

### 연구대상과 절차

서울시내 S대학교와 경기도 소재 H대학교의 동아리 소속 대학생 및 대학원생 346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과, 200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동아리 관계자를 통해 질문지 응답방식을 설명하고 무선배포 후 작성하도록 해서 수거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6부를 제외한 339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339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197명(58%), 여학생은 141명(42%)이었으며, 대학 1학년이 114명(33%), 2학년이 119명(35%), 3학년이 43명(13%), 4학년이 35명(10%)이었으며, 대학원생 및 기타가 28명(8%)이었다.

### 측정도구

####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Cook이 개발해 198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ISS 가운데 제5편의 원문을, 제1 연구자가 우리 말로 번역한 후 상담전공 과정의 대학원생 2명이 이를 실시해보고, 이를 다시 영어를 익숙하게 사용하는 제2 연구자의 검토와 역번역을 거쳐 수정 후 사용하였다. ISS는 30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원칙도에서는 단일 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고된다(Cook, 2001). 본 연구에서는 국내표본을 대상으로 이를 다시 요인분석 했다(본 연구 표1 결과 참고). ISS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의 자존감 척도로 구성돼 있다. 자존감 6문항은,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지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와 ISS에 포함시킨 것이다. 전체 척도는 ‘그런 경우가 없다(0)’에서 ‘거의 항상 그렇다(4)’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돼 있으며,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의 합계로 측정된다. 0에서 96의 점수분포를 나타내며 Cook의 연구에서는 50 이상의 점수는 ‘고통스럽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치심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고된다.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임상집단이 .96, 비임상집단이 .9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3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냈다.

#### 애착 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Armsden과 Greenberg(1987)가 Greenberg, Siegel과 Leitch의 1984년 척도를 개정해서 만든 부모,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을 옥정(1998)이 번안한 것 중에 어머니에 대한 애착척도 부분만을 사용하였다. 25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돼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잘 되어 있음을 뜻한다. 원칙도

에서는 의사소통, 상호신뢰, 소외의 3개 하위 요인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내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사용한 각 논문마다 요인분석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와,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상정하지 않고 단일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옥정의 연구에서와 같이 *Cronbach's α*로 .92를 보였다.

####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자기애의 속성 가운데 타인에 대한 예민성 및 자기몰입 요인이 수치심과 가지는 관계를 보기 위해 Hendin과 Cheek(1997)의 과민성 자기에 척도를 사용하였다. Hendin과 Cheek(1997)은 20문항의 1938년 Murray의 자기애검사 척도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MMPI관련 자기에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문항 10개를 뽑아서 이 척도를 만들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남운(200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남운의 연구에서는 원래의 10개 문항에서 문항 총점 상관이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하여 평가예민성과 자기몰입의 2개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한 결과 정남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Hendin과 Cheek(1997)의 연구에서 보고한 검사의 신뢰도는 집단에 따라 *Cronbach's α*로 .72, .75, .62이며, 정남운의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라 .69와 .71, 본 연구에서는 .69로 나타났다.

#### 사회적/정서적 성인외로움 척도 단축판(Short form of the Social &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 SELSA-S)

DiTommaso와 Spinner(1997)가 외로움을 다차

원으로 측정하기 위해 만든 사회적/정서적 성  
인외로움 척도(Social &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 SELSA, 1997) 37문항을 DiTommaso와  
Brannen, Best(2004)가 임상적 사용편의를 위해  
단축해 개발한 SELSA-S를 사용했다. 질문지는  
제1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안한 후, 상담전공  
대학원생 3명으로 하여 하위요인의 안면타당  
도를 검토하게 했다. 이를 다시 영어에 익숙한  
제2 연구자의 검토와 역번역을 거쳐 수정 후  
사용하였다. ‘나는 가족과 가깝다고 느낀다’  
‘나는 친구집단의 일원으로 속한다고 느낀다’  
‘내게 지지와 용기를 주는 이성친구나 배우자  
가 있다’ 등 가족과 친구, 연애관계에서 각각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각 5문항씩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  
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DiTommaso, Brannen와 Best(2004)의 연구에서는  
집단에 따라 Cronbach's  $\alpha$ 로 .87에서 .90, 본 연구  
에서는 .81의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 통계분석

먼저 IS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결과를 요인분석 하였다. 이어 ISS로 측정된 수  
치심과, ISS에 포함된 자존감, 그리고 어머니와  
의 애착, 파민성 자기애, 외로움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서 각각을 상관분석 하였다. 그리  
고 어머니와의 애착이 수치심과 자존감, 파민  
성 자기애,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요인구조

국내 표본에서의 ISS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험자로부터 얻  
은 자료를 요인분석하기 전에, ISS 가운데 자존  
감 6개 문항(4, 9, 14, 18, 21, 28번)을 제외하고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 문항에 대해서 먼저  
문항-총점 상관을 구하였다. 결과 모든 문항이  
 $r=.41$ 에서 .73까지의 상관을 보여 ISS의 수치심  
24개 문항 전체를 요인분석 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방식으로 varimax 회전을  
사용했다. 분석결과 고유치가 1.0을 넘는 요인  
이 4개가 도출되었다. 24개 문항은 제외된 문  
항 없이 4개 요인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각 요  
인별로 .426에서 .792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이 결과에 따라 4개의 요인을 확정하고, 제1요  
인을 ‘부적절감’ 제2요인을 ‘공허’ 제3요인을  
‘자기처벌’ 제4요인을 ‘실수불안’으로 명명하였  
다(표 1). 전체 누적변량은 57.82%이며, 요인별  
로는 부적절감 요인이 39.60%, 공허 요인이  
7.08%, 자기처벌 요인이 6.08%, 실수불안 요인  
이 5.15%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적  
절감 요인이 ISS에서 측정된 수치심을 설명하  
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전체 수치심 척도와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계수와 신뢰도를 구하였다(표 2). 요인간  
상관계수 행렬에서 부적 상관이 없으며, 피어  
슨 상관계수로  $r=.46$ 에서 .67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요인은 서  
로  $r=.67$ 에서, .62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실수  
불안 요인은 나머지 세 요인과 상관에서  $r=$   
.46에서 .48.까지로 앞서 요인간의 경우보다 낮  
게 나타났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93,  
각 요인별로는 .74에서 .89까지의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표 1. ISS 수치심문항의 요인별 소승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문항 내용	요인부하량
제1요인 : 부적절감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673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이상(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664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659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알본다	.657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647
1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627
10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583
12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556
24	때로 나는 쿡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495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451
제2요인 : 공허		
29	나의 외로움은 텅빈 공허감과 같다	.792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789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767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	.640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467
제3요인 : 자기치별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726
22	때로 내가 수천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725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고 싶다	.637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열려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618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426
제4요인 : 실수불안		
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추려 드는 것 같다	.763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762
13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720
16	다른 사람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540

표 2. ISS 수치심 요인간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일치도

척도	1요인	2요인	3요인	4요인	전체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Cronbach's $\alpha$ )
1요인	1.00					10	11.17	7.16	.89
2요인	.67**	1.00				5	6.66	4.51	.86
3요인	.67**	.62**	1.00			5	6.13	3.90	.78
4요인	.48**	.46**	.46**	1.00		4	7.91	3.14	.74
전체	.92**	.84**	.83**	.67**	1.00	24	31.89	15.66	.93

\*\*  $p < .01$

수치심과, 어머니 애착, 자기애, 외로움의 관계

ISS(Internalized Shame Scale)의 수치심 척도 요인분석에 자료를 제공한 동일한 피험자집단에 대해 ISS의 자존감 문항과 어머니와의 애착 척도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과민성 자기애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사회적/정서적 성인의 외로움 척도 단축판(Short form of the Social &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 SELSA-S)을 동

표 3. 수치심과 어머니 애착, 자기애, 외로움의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평균	표준편차
ISS	부적절감	11.17	7.17
	공허	6.66	4.51
	자기치별	6.13	3.90
	실수불안	7.91	3.14
	자존감	14.98	4.28
IPPA-R	어머니 애착	94.93	14.55
HSNS	평가예민성	15.33	3.41
	자기몰입	7.43	2.21
SELSA_S	가족외로움	10.09	4.30
	친구외로움	10.92	3.86
	연애외로움	15.74	4.89

ISS: 내면화된 수치심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PPA-R: 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HSNS: 과민성 자기애 척도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SELSA-S: 사회적/정서적 성인외로움 척도 단축판(Short form of the Social &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

시에 실시하게 했다. 이들 척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ISS로 측정된 수치심과 자존감이, 어머니 애착, 과민성 자기에 척도의 평가예민성 및 자기몰입, 그리고 가족/친구/연애관계에서의 외로움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치심은 자존감, 어머니 애착, 과민성 자기에의 평가예민성과 자기몰입, 가족/친구/연애관계에서의 외로움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자존감과 어머니 애착은 수치심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에와 외로움은 수치심의 전체 점수 및 하위요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을 보였다.

전체 수치심과 그 하위요인들의 관계를 보면 부적절감 요인의 경우, 전체 수치심과  $r=.92(p<.01)$ 의 대단히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고,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등도 수치심 전체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ISS의 하위요인들이 각 요인별로 독립되면서도 개인 안에서 일관되게 연결되는 하나의 정서적 인지적 경험군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심과 자존감은  $r=-.51(p<.01)$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여 수치심이 클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임을 보여준다. 다만 수치심의 하위요인 가운데 실수불안 요인은 자존감과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는 있지

표 4. ISS의 수치심과 다른 하위척도와의 상관

척도	전체 수치심	부적절감	공허	자기 처벌	실수 불안	자존감	어머니 애착	평가 예민성	자기 몰입	가족 외로움	친구 외로움	연애 외로움
전체 수치심	1.000											
부적절감	.92**	1.000										
공허	.84**	.67**	1.000									
자기 처벌	.83**	.67**	.62**	1.000								
실수 불안	.67*	.48**	.46**	.46**	1.000							
자존감	-.51**	-.58**	-.41**	-.36**	-.19**	1.000						
어머니 애착	-.40**	-.44**	-.38**	-.30**	-.20**	.38**	1.000					
평가 예민성	.42**	.38**	.31**	.28**	.42**	-.14*	-.17**	1.000				
자기 몰입	.40**	.42**	.36**	.32**	.13*	-.26**	-.38**	.35**	1.000			
가족 외로움	.47**	.49**	.46**	.37**	.11*	-.39**	-.69**	.34**	.34**	1.000		
친구 외로움	.45**	.47**	.41**	.35**	.15*	-.44**	-.40**	.40*	.39**	.55**	1.000	
연애 외로움	.30**	.25**	.31**	.18**	.23**	-.32**	-.04	.11*	.09	.07	.23**	1.000

\*  $p<.05$  \*\*  $p<.01$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자존감은 ISS의 측정값  
 어머니 애착은 IPPA-R의 측정값  
 평가예민성, 자기몰입은 HSNS의 측정값  
 가족외로움, 친구외로움, 연애외로움은 SELSA-S의 측정값

만  $r=-.19$ 의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수치심과 어머니 애착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r=-.40, p<.01$ ). 수치심 하위요인 가운데 부적절감 요인이 어머니 애착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수치심은 과민성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 평가예민성, 자기몰입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수치심의 실수불안 하위요인은 자기애의 자기몰입 요인보다 평가예민성 요인과 더 상관 정도가 높았다. 수치심은 또 외로움과의 관계에서 가족/친구/연애 외로움의 모든 하위 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 수치심이 큰 사람일수록 가족, 친구, 연애관계 모두에서 외로움을 크다는 것을 보였다. 특히 수치심의 부적절감, 공허 요인은 가족 및 친구관계에서 외로움과 상관이 컸다( $r=.41\sim.49$ ). 그러나, 수치심 하위요인들과 연애관계에서의 외로움은 유의미한 상

관을 보이기는 하지만( $r=.18\sim.31$ ),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의 외로움이 수치심과 보이는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치심의 하위요인 중 실수불안만이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외로움보다, 연애에서의 외로움과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애착은 자기애, 외로움 모두와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자기애와 가족,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은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어 자기애의 정도가 클수록 외로움의 수준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애관계에서의 외로움은 자기애의 평가예민성 부분에서만 유의미하지만 아주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자기애의 몰입요인과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수치심과 자기애 모두 중요양육자의 돌봄의 부적절성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어머니 애착이 각 변인들에 주는 영향력을

표 5. 수치심, 자존감, 자기애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R <sup>2</sup>	F
수치심	어머니애착	-.43	-.40	.40	.16	64.94***
자존감	어머니애착	.11	.38	.38	.14	55.67***
자기애	어머니애착	-.11	-.32	.32	.10	37.61***

\*\*\*  $p<.001$

표 6. 외로움에 대한 수치심, 자존감, 자기애, 어머니 애착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R	R <sup>2</sup>	F
외로움	어머니애착	-.32	-.50	.50	.25	112.47***
	자존감	-1.15	-.53	.53	.28	128.58***
	수치심	.33	.56	.56	.31	151.74***
	자기애	.61	.33	.32	.11	40.72***

\*\*\*  $p<.001$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5에서 보면 어머니의 애착은, 수치심의 16%의 설명력을 가지며, 과민성 자기애의 10%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또 어머니 애착은 ISS의 자존감 하위척도로 측정된 자존감에 대해 14%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낮은 어머니 애착과 자존감, 자기애, 수치심 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 애착, 자존감, 자기애, 수치심 등을 독립변인으로 각각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분석 결과 가족과 친구 연인 등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 전체에 대해 어머니 애착은 25%, 자존감은 28%, 자기애는 11%, 수치심은 31%의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발달초기 중요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내면화되기 시작해 개인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되는 중요한 임상적 함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질척도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의 첫 번째 시도로 특질수치심 척도의 국내 타당화의 예비연구로, Cook의 ISS(Internalized Shame Scale)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도했다.

요인분석에서 얻은 결과는 ISS가 내적인 일관성 있는 요인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ISS의 요인구조는 4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각각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 ISS에서 측정하는

수치심에서 가장 설명력이 큰 부분은 부적절감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수치심의 포괄적 구조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덧붙여 요인별 문항수에 있어서도 수치심을 재는 24개 문항 가운데 부적절감과 관련된 문항이 10개이고 나머지 3개 요인을 재는 문항은 각각 4~5개로 나타나, 문항의 개발과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질척도인 ISS의 척도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 Tangney는, ISS가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1965)를 포함한 각종 자존감 척도와 -.81에서 -.89의 상관을 보이고, 이후 개정된 ISS(1991)에서조차 -.52, -.79의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ISS로 측정된 수치심과 낮은 자기존중감(low self-esteem) 사이의 변별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Tangney, 1996).

이와 관련해 Cook(2001)은, ISS가 자기애에 대한 느낌을 측정한다는 면에서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esteem) 척도와 관련성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치심은 일관되게 자기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global)' 자존감 척도와는 차이가 있고, 또 낮은 ISS 점수가 반드시 긍정적인 자존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존감 개념의 하위요인의 다양한 분화를 수용하고 있는 '다요인' 자존감 척도일수록 ISS와의 상관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Perham과 Swann은 무엇이 자존감(self-esteem)의 구성개념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역사적으로 불일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이 자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느낌(global feeling state)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순전히 자아에 대한 인지적인 추상개념(purely cognitive abstraction)이라고도 한다(Cook,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불일치는 수치심의 개념을 둘러싸고도 있는데, Tangney(2002)는 수치심을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global) 부정적 경험’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수치심’은 하나의 정서(emotion-affective state)이며, 특질 혹은 성격경향성(disposition)으로 이야기할 때는 ‘수치심 경향성(shame-proneness)’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Kaufman(1989)은 수치심이 내면화되면 한 개인의 성격이 수치심에 기초한 정체성(shame-based identity)으로 특질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수치심이 ‘자기(self)’를 부정적으로 표상하고 자기평가하는 정서적, 인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겹침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런 관점을 수용한다면, 수치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는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면화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였다. 이를 위해 발달 초기 중요 양육자로 상징되는 어머니와의 애착, 그리고 부적절한 돌봄에 대한 방어적 적응형태인 자기애, 그리고 개인의 관계 경험에 대한 지각인 외로움과의 관계를 아울러 살펴보았다.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보면, 어머니와의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은 수치심을 많이 느끼고, 자기애적인 몰입과 평가예민성을 보이고, 가족, 친구, 연애 등 중요한 관계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심 하위요인 중에는 부적절감 요인이 어머니 애착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 수치심의 하위요인들은 과민성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평가예민성, 자기몰입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수치심이 높은 사람, 즉 자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고 공허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일수록 평가에 대해 예민함과 동시에 자기 안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한편 수치심의 실수불안 하위요인은 자기애의 자기몰입 요인보다 평가예민성 요인과 더 상관 정도가 높았다. 실수불안 요인과 평가예민성 요인은 둘 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어 상관의 정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상관의 정도는 .42 ( $p < .01$ )의 중간 정도의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수치심의 실수불안 하위요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점과 실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이라면, 자기애의 평가예민성은 인정과 자기 독특성, 무시 받는 것에 대한 거부 등의 자기애적 특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치심과 외로움의 관계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수치심이 큰 사람일수록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연애관계 모두에서 외로움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치심의 하위요인과 가족/친구 관계에서의 외로움은 비슷한 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 $r = .41 \sim .49$ ). 그러나 연애관계에서의 외로움은 수치심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지만( $r = .18 \sim .31$ ), 가족/친구 관계에서의 외로움이 수치심과 보이는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의 정도가 낮았다. 수치심 하위 요인 가운데 실수불안의 경우에만 가족, 친구관계에서의 외로움과의 상관( $r = .11 \sim .15$ )보다 연애관계의 외로움의 상관( $r = .23$ )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수치심이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는 비슷

한 경향을 나타내면서, 연애관계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애착으로 수치심을 내면화한 경우 연애의 공생적 경험을 통해서 보상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칠게 추론해 본다.

Cook(2001)은 ISS의 유용성으로 임상적 사용 가치를 강조하였다. ISS 초기의 개발에서 연구 표본이 되었던 집단이 알콜 중독자 집단이었던 데에서 알 수 있듯이 ISS의 각 문항들은 실제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집단의 실제 정서적, 인지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 ISS의 문항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들은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인 주의를 필요로 한다. Cook(2001)에 따르면 ISS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내면화된 수치심 경험이 상대적으로 자주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ISS 점수 60 이상은 현재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70 이상은 우울증이나 다른 정서적 행동적 문제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또 ISS에서의 특정문항에 대한 반응을 점검해서, 그 정서가 어디에서 오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리고 연상되는 다른 기억이 있는지,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탐색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Cook의 주장이 국내 상담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척도의 타당화가 더 진행되어야 하고 기준 또한 표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면화된 수치심' 개념 자체도 상담현장에서의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수치심의 연구는 주로 죄책감과 구분해 비중이 주어져서 이뤄졌다. 이 같은 연구는 상담에서의 치료적 개입의 대상이 되는 정서가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제상담에서는,

수치심을 '극복해야 할' 일종의 부정적 정서로만 보고 '수치심 공격하기' '수치심 무릅쓰고 목표행동 하기' 등의 형태로 개입이 이뤄져 온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 어린 시절 애착의 불안정성과 자기 공감 경험의 실패로 생겨난 하나의 핵심역동으로 자기상의 훼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또 이 같은 수치심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켜, 대인관계에서 철회 행동으로 나타내게 하는 자기애적 과민성을 야기하며,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손상, 즉 소외와 외로움의 경험에 연결되는 것임을 보이고자 했다. 이 경우 수치심은 '도전해서 없애버려야 할' 부정적 정서이면서도, 이에 앞서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 자기대상의 실패에 대한 좌절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입 역시 그 좌절에 대한 공감반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외로움과 자기애, 그밖에 수치심이 핵심정동으로 이야기 되는 섭식장애와,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진 내담자에 대해서 보다 깊은 현상학적 이해를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본 연구가 각 변인들간의 경로분석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어, 연구의 한계로 두고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의 결과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표본이 대학의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의 구분을 통해서 수치심의 차이를 규명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연구에 쓰인 애착 척도, 자기애 척도에도 제한점이 있다.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애착 척도인 IPPA-R은 이를 이용한 여러 국내연구에서 요

인구조가 일치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단일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다. 또 IPPA-R에서 측정하는 애착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현재 혹은 포괄적인 의사소통과 신뢰를 묻는 문항들로 이뤄진 것이어서, 초기양육단계에서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믿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민성 자기애 척도인 HSNS는, 자기애의 방어적 속성으로 인해서 수치심과의 관계가 제대로 포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거대자기의 환상을 묻는 문항과, 반대로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 수치심의 속성을 반복 측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 연구의 연구도구로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HSNS를 이용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가운데 과민성과 자기몰입을 측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HSNS의 하위요인인 평가예민성과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수와 요인구조의 내적일치도가 제한적인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고나영 (2004). 수치심척도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예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아 (2003). 수치심에 대한 목회상담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문제. *심리과학*, 11(1), 35-5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 남기숙 (2003). 수치심과 죄책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 59-70.
- 류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현령 (2002). 자기불일치와 수치심, 죄책감의 관계: 자기불일치 중요도와 자기기준 선호도의 조절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중운 (2000).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안신애 (2004). 초등학생의 수치심과 성취귀인,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아개념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정 (1998). 청소년기 안정 애착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철은 (2002). 심리적 피학대 여성의 수치심, 죄책감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3(1), 193-216.
- 정형수 (2003). 수치심의 지각 정도에 따른 대처 방식과 우울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유미 (1998). 아동의 성, 초기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따른 아동의 정서 표현: 자부심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04). 자기애가 사회 불안에 미치는 영

- 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수 (2002).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llan, S., Gilbert, P., & Goss, K.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I.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7, 719-722.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16, 427-453.
- Broucek, F. (1991). *Shame and the self*. New York: Guilford Press.
- Classon, K., & Sohlberg, S. (2002). Internalized shame and early interaction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Replicated finding.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9, 277-284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s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3, 405-419.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DiTommaso, E., Brannen, C., & Best, L. (2004). Measurement and validity characteristic of the short vers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1), 99-119.
- Erickson, E. H. (1971). Autonomy v. shame and doubt. In H. Morris (Ed.), *Guilt and shame*(pp.155-158).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erguson, T. J., & Crowley, S. L. (1997). Measure for measure: a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guilt and sham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425-441.
-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3(1), 23-34.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7, 713-717
- Harder, D. H. (1995). Shame and guilt assessment, and relationships of shame-and guilt-proneness to psychopathology.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Harder, D. H., Cutler, L., & Rockart, L. (1992).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9, 584-604.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ity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based syndrom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sel*.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nsky, M. R., & Morrison, A. P. (1997). *The widening scope of shame*. Hillsdale: The Analytic

- Press.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Shame and narcissitic personality,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Morrison, A. P. (1989). *Shame: the underside of narcissism*. Hillsdale: Analytic Press.
- Morrison, A. P. (1996). *The cultre of shame*. Northdale, N. J.: Jason Aronson Inc.
- Nathanson, D. L. (1987).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Nathanson, D. L. (1992). *Shame & pride*. New York: Guilford Press.
- Piers, G., & Singer, M. B. (1953). *Shame & guilt*.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plicher.
- Rybak, C. J., & Brown, B. M. (1996). Aassessment of internalized sham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14(1), 71-83.
- Schurman, C. L. (2000). *Social phobia and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right Institute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 Tomkins, S. S. (1987). Shame.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TOSCA)*. George Mason University, Fair Fax, VA.
- Tangney, D. P. (1996).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4, 741-754.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Wurmser, L. (1987). The Veiled companion of narcissism.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05. 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19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 Assessment of Sh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Insuk Lee

Hankuk aviation University  
Student Counseling Center

Haerim Choi

Sogang University

In the first part of the present study we discussed what is the better way to assess individual's shame-proneness, by trait shame scale or state shame scale. The factor analysis of Internalized Shame Scale(Cook, 1994), trait shame scale, was analyzed to identify four different factors: inadequacy, emptiness, self punishment and fear of mistake.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we explored the relationships among shame, maternal attachment, hypersensit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Participants were 339 college students(197 male and 141 female) aged 18 to 29 completed the Internalized Shame Scale(ISS),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R),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HSNS) and Short Form of the Social &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SELSA-S). Results revealed shame was correlated negatively with maternal attachment and positively with hypertensive narcissism and loneliness.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previous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hame, attachment, narcissism, loneliness